

이번엔 가수 문문...2년 전 화장실 몰카로 아웃!

당시 집유 2년 선고...전과사실 숨겨 뒤늦게 안소속사 계약해지하고 사과 "이미지 좋았는데 실망스럽다" 팬 분노



문문

연예계 유망주들이 성범죄 전력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성폭력 사실을 숨긴 채 활동하다 들끓는 바람에 더욱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비행운'이란 노래를 역주행시키며 큰 인기를 누린 가수 문문(김영신·30)은 2년 전 '화장실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25일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문은 이 같은 '전과'를 숨기고 작년 11월 하우스 오브 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우스 오브 뮤직은 25일 "(문문의 화장실 몰카 범죄는)문문과 전속계약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문은 싱어송라이터로서 독특하면

서도 감성적인 음색과 음악성으로 여성팬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누렸기에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겼다. 음원강자로 주목받던 문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현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기자 이서원(21)은 4월8일 술자리에서 동료 여자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흥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KBS 2TV '뮤직뱅크'를 한달 넘게 진행했고, tvN 월화드라마 '어바웃 타임'도 촬영했다. 결국 한 달 만에 들끓으면서 이서원은 팬들의 실망과 분노를 유발시켰다. '제2의 박보검'으로 불리며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병원선'

의 주인공을 맡은 그로서는 팬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긴 셈이 됐다.

4월에는 방송인 김생민이 10년 전인 2008년 방송 스태프를 성추행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20년 무명 생활을 썼고 처음으로 전성기를 맞은 상황이었던 까닭에 대중의 충격은 컸다.

이들의 사례는 단순히 '연예인의 몸가짐'에 대한 반면교사를 넘어 스타와 팬,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신의'에 관한 문제로 회자되고 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이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도 그렇지만 양심을 저버린 모습이 더욱 실망스럽다"면서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ummy@donga.com



리메이크 영화 '독전', '리틀 포레스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사라진 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영화 톱10중 6편 리메이크...왜?

매력적 캐릭터로 흥행 성공 불구 "스토리텔링 부재의 단면" 지적도

매력적인 이야기를 재가공하는 리메이크만의 묘미일까. 한국영화 스토리텔링 부재를 드러내는 단면일까.

올해 유독 리메이크 영화의 등장이 두드러지고, 또 대부분 흥행에도 성공하는 가운데 '독전' 역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검증된 스토리로서 갖는 경쟁력이 국내 관객과도 통한 결과이지만,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흥행 톱10 가운데 무려 6편(27일기준·영화진흥위원회)이 리메이크 작품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2일 개봉해 27일까지 약 170만 관객을 동원한 '독전'은 2013년 나온 두치평(두기봉) 감독의 흥행영화 '마약전쟁'을 리메이크했다. 악명 높은 마약왕을 추적하는 경찰과 그 마약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게 된 조직원이 마약 거래에 위장 침투해 벌이는 이야기다. '독전'은 원작의 주요 인물과 뼈대를 그대로 옮기면서도 우리 사회에 맞는 내용과 정서로 각색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월 개봉해 154만 관객을 모은 '리틀 포레스트', 3월 멜로영화로는 높은 성적을 거둔 '지금 만나러 갑니다'(261만) 역시 각각 일본만화화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

들이다. 비슷한 시기 일본소설을 영화로 옮긴 '골든슬럼버'(138만), 스페인영화가 원작인 '사라진 밤'(131만), 체코영화를 각색한 '바람 바람 바람'(119만)도 성과를 낸 작품들이다.

이들의 성격이 고무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흥행 부침이 유독 심각한 올해 한국영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리메이크 작품 6편이 한국영화 흥행 톱10에 전부 포함됐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어려운 기록이자 현상이다.

최근 이 같은 리메이크 움직임은 '새로운 소재'와 '검증된 기획'을 향한 제작진의 시선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이야기를 각색하는 과정이 성패를 좌우한다. '독전'의 이해영 감독 역시 마약과 한국사회라는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1970~1980년대 마약 유통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았고, 그 뿌리를 '독전' 안에 녹였다"고 밝혔다.

한쪽에서는 리메이크 영화의 잇단 등장과 흥행의 이면도 한번쯤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소재의 고갈" 상황에서 리메이크가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이런 사실이 곧 스토리텔링의 부재를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슈츠'의 박형식, 스크린 영역 확장

드라마 '슈츠'서 한층 성숙한 연기 7월 문소리와 '어쩌다 배심원' 촬영 첫 상업영화...스크린 활동 본격화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박형식이 연기자로서 본격적인 영역 확장에 나선다.

박형식은 배우 문소리와 함께 7월부터 영화 '어쩌다 배심원'(감독 홍승완·제작

반쪽반쪽영화사)의 촬영을 시작한다. 현재 출연 중인 KBS 2TV 드라마 '슈츠'에 이어 휴식이 없이 연기자로서 위상을 다지기 위한 행보다.

'어쩌다 배심원'은 2008년 대구에서 진행된 국내 첫 국민참여 재판을 모티브 삼은 작품. 재판관 역을 맡는 문소리와 함께 박형식은 배심원으로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펼친다. 이를 통해 박형식은 본격적인 스크린 활

연예현장.jpg 유빈, 이런 모습 처음이야



솔로가수로 새 출발하는 유빈이 새 음반에 앞서 공개한 패션화보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뽐냈다. 원더걸스 시절 '컬크러시'로 시선을 모았던 유빈은 한 패션지 6월호에서 '8090 레트로 무드'를 콘셉트로 성숙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유빈은 6월5일 발표하는 첫 솔로음반 '도시여자'를 통해서도 변신을 단행한다. 2007년 원더걸스 멤버로 데뷔 후 11년여 만에 홀로서기에 나선 유빈은 솔로 데뷔곡 '속녀'를 통해 래퍼가 아닌 보컬리스트로 변신을 일린다. 사진제공 | 그림공작소



박형식

동에 나서게 됐다. 2010년 그룹 제국의아이들의 멤버로 데뷔한 뒤 2012년 SBS 설 특집극 '날 기약해'로 안방극장에 등장한 그는 SBS '상속자들',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등을 거치며 연기자로서 위상을 다져왔다. 그 사이 애니메이션 '저스틴'과 '트림'에서 목소리 연기를 펼친 그는 지난해 허진호 감독의 단편

영상프로젝트 '두 개의 빛:룰루미나'에 출연한 바 있다. 따라서 '어쩌다 배심원'은 첫 장편 상업영화가 된다.

현재 박형식은 '슈츠'에서 장동건과 호흡을 맞추며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연기로 시청자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면모로 연기자 박형식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슈츠'가 법정드라마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사회정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어쩌다 배심원'을 차기작을 선택한 것도 눈길을 모은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해시태그 컷



'돌멩이 아빠' 이종석

배우 이종석이 반려견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인지, 주위의 시선 때문인지 마스크를 끼고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반려견 '돌멩이'는 산책이 끝나가는 것이 아쉬운 듯 뒤돌아보고 있고, 이종석은 "돌멩이 산책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이종석 #누굴위한산책인가

이정연의 꼬리물기

연기력까지 인정 받은 아이유

가수 아이유(이지은·25)가 데뷔 이래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몇 해도 다 되는, 두려울 게 없는 '파워'를 지니게 됐다. 아이유하면 정성규 여가수로 세상 부러울 게 없었지만, 이제 드라마 한 편으로 그 이상을 얻게 됐다.

그의 달라진 입지를 증명하듯 최근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이유 이름과 함께 분석된 키워드 중 '놀랍다'는 말이 나온 것도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그의 연기력과 관련 있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그가 보여준 연기력은 기대이상이었다. 지난해 11월 여주인공으로 아이유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만해도 "암울한 캐릭터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연예인 격정이 세상에서 가장 쓸 데 없는 일이라지만, 아이유는 자신의 이름값에도 드라마로는 '대표작'으로 딱히 내세울 만한 작품이 없었던 터라 또한 편의 아쉬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쓸 데 없는 걱정'이었다. 직전 출연한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주인장' 이효리에 대한 관심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프로그램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던 만큼 그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유는 그동안 자신에게 쏟았던 '연기력'에 대한 각박한 평가와 시선을 보란 듯이 거두었다. 이런 성과를 두고 "탄탄한 대본과 연출 덕분"이란 평가도 있지만 아이유는 분명 크게 성장했다.

드라마가 종영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하다. 마지막 회 '지안(극중 이름), 편안함에 이르렀나'라는 이선균의 대사처럼, '연기자 이지은'은 편안함에 이르렀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인드영·김형조 기자